



[별지 제33호 서식]

서울특별시 서초구 법원로 15,
306호(서초동, 정곡빌딩서관)

공증인가 법무법인 새한양

TEL : 591-3440
FAX : 591-3441

등부 2026년 제304호

인 증 서

2026년도 사단법인 동물권행동 카라 정기총회 의사록

● 회의일시

2026년 2월 26일 오후 7시 10분부터 오후 9시까지

● 회의장소

서울시 영등포구 영신로 200 하자센터 본관 2층 소강당

● 참석자

총회 성원수 204명 중 참석 164명으로 과반인 103명을 넘겨 성원이 됨

● 의제

[의안 제1호] 2025년 사업보고 및 결산 승인의 건

[의안 제2호] 2026년 사업계획 및 예산안 확정 의 건

[의안 제3호] 감사보고서 채택 의 건

[의안 제4호] 기본재산 편입 의 건

[의안 제5호] 차입금 최고 한도액 결정 의 건

[의안 제6호] 임원 선출 의 건

● 회의내용

1. 의장 인사

의장 전진경이 개회를 알리며 온라인 정기총회에 참석한 대의원 및 유튜브 라이브를 통해 시청하는 내빈에게 인사말을 전하다.

2. 성원 보고



의장 전진경이 2026년 2월 26일 기준, 총회 성원 수 204명 중 164명의 대의원이 참석하여 총회가 적법하게 성립되었음을 알리다.

3. 개회 선언

의장 전진경이 위 참석자와 같이 성원이 되었으므로 개회를 선언하다.

4. 전차 회의록 낭독

사무처장 김현지가 전차회의록을 낭독하다.



5. 의사일정 보고

사무처장 김현지가 의사일정을 보고하다.

의장 전진경이 의사일정 보고에 대한 동의와 재청을 요청하고, 대의원 하미정 동의, 이사 김정빈 재청으로 의사일정을 채택하다.

6. 의사록 서기와 서명날인 회원의 선임

의장 전진경이 총회의 의사록 서기로 활동가 신주운을 지명하고, 서명날인 임원으로 이사 김정빈, 이사 박지영을 지명하다.

의장 전진경이 의사록 서기와 서명날인 임원 선임을 위해 일괄 동의와 재청을 요청하고, 대의원 하미정 동의, 이사 김정빈 재청으로 승인 선임하다.

7. 의결 안건

제1호 의안 2025년 사업보고 및 결산의 건을 사무처장 김현지, 대외협력그룹장 임미숙, 정책교육구호그룹장 김영환, 동물복지그룹장 김현정이 설명하다. 제1호 의안의 연관 안건인 제3호 의안 감사보고서 채택의 건을 회계팀장 김수진이 설명하다.

제2호 의안 2026년 사업계획 및 예산안 확정 건을 사무처장 김현지, 동물복지그룹장 김현정, 정책교육구호그룹장 김영환, 대외협력그룹장 임미숙이 설명하다.

제4호 의안 기본재산 편입의 건을 사무처장 김현지가 설명하고 의장 전진경이 보충 설명을 하다.

제5호 의안 차입금 최고 한도액 결정의 건을 사무처장 김현지가 설명하고 의장 전진경이 보충 설명을 하다.

제6호 의안 임원 선출의 건에 대하여 의장 전진경이 설명하고 김광수 후보와 이은애 후보가 각각 인사말을 하다.

8. 질의응답

의장 전진경이 원활한 질의응답을 위해 대의원의 질의를 선 접수 후 순차적으로 답변하겠음을 알리고 질의방법에 대해 설명하다.

- 대의원 홍진환: 잘 들리십니까? 코생이 많으시다. 총회 관련하여 자료들을 다 봤는데 온라인 채팅방에서도 궁금증이 안풀려서 질문드린다. 가장 중요한 것 같은데 예산안에 들어가 있는 45억 원 마포센터 매매금액에 대해서 다들 궁금해하시는 것 같다. 감정평가 65억 원 기사가 이미 나온 상황이고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때 45억이었다고 하셨다. 매매 염두에 둔다면 감정평가액이 65억인데 45억으로 매매하는 것이 이해가 안가고 차입을 더 늘려야 하지 않나. 영화제도 사라진 것 같은데 예산문제 때문일 텐데 왜 20억이나 낮은 금액으로 급하게 매매하시려는 건지 자료로서 소명이 안된 것 같아 질문드리려고 한다. 이 부분이 해소되어야 예산안을 표결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사무처장 김현지가 대의원 홍진환의 질의에 답변하다.

- 사무처장 김현지: 가격 자체에 대한 부분이라면 감정평가액과 거래가는 차이가 있기 마련이다. 실제로 작년부터 45억 원 이상으로 마포 부동산을 매각하는 것을 목표로 움직여 왔는데 45억 원에도 거래가 성사되지 않았던 것이 현실이다. 65억 원이라는 감정평가액은 최근 갑자기 대두되기 시작했다. 그래서 카라에서도 공식으로 정식 감정평가를 받았고 65억이라는 액수와 상당히 많은 차이가 난다. 실제 저희가 매각을 추진해 왔던 액수와 오히려 더 가까웠고 자료를 공개하며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다.

의장 전진경이 답변을 이어간다.

- 의장 전진경: 이게 그 감정평가서인데 봐달라. 그리고 저희가 2018년에 태출을 할 때 나라감정평가원에서 감정평가 받은 것은 32억 원이었다. 자세히 보여드리면, 2018년 6월이었는데 32억 원이었다. 저희가 부채를 가지고 있는데 내역을 자세히 보시면 14억 원에 더불어숨센터 담보 부채가 있다. 2019년이었고 은행에서 정식 감정평가는 41억 원이 나왔던 거다. 그래서 저희도 지금 65억 원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아한 상황이고 아까 설명드렸지만 45억 원에도 매매가 안되고 있는 상황임을 말씀드린다. 동물돌봄 기반시설에 자금이 많이 들어가는데 건물 매각이 안 되면 기반시설이나 동물을 데리고 오는 일도 어려워진다. 비상경영 상황에서 매각 진행이 안될 수도 있기에 의안 제5호 차입금 최고한도액 결정의 건도 안건으로 올라가게 된 거다. 경영을 위해서는 필수불가결하다.

- 대의원 김연주: 이번에 내규가 바뀌면서 긴 후원기간으로 선정된 대의원으로서 궁금한 게 많고 다섯 가지 질문을 드린다. 코로나 이후 비대면 총회를 많이 접하지 못했는데 왜 카라는 아직까지 비대면으로 진행하고 있는지 담당 그룹장이 설명해 주시기 바란다. 위탁시설 이슈가 제기되었는데, 활동가나 후원자들이 방문했을 때 방문이 허락되지 않는다고 들었다. 카라에서 이 부분을 의도적으로 방치한 것인지 궁금하다. 비상경영 와중에 왜 20억 원을 투자해서 다른 건물을 세우려고 하는지, 사업계획서상에 20억 원에 대한 계획이 있는데 어떤 이유로 비상경영중에 필요한 것인지 궁금하다. 기본재산 편입 관련해서 토지와 건물 모두 넣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왜 선택적으로 진행되는 것인지 알려달라. 회원 게시판이나 SNS 댓글이 모두 막혀 있는데 후원만 했던 사람으로서 카라를 믿고 경영을 들여다보지 않았지만 최근 제기된 문제에 대해서는 심각성을 느낀다. 다른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하고 이런 것들을 깨끗하게 드러내면 좋겠다. 운영계획과 개선 계획을 알려달라. 이사 선임 관련하여 어떤 이유로 동물 관련 이력 없이 후보로 올라오신 건지 궁금하다.

의장 전진경과 대외협력국장 임미숙이 대의원 김연주의 질의에 답변하다.

- 의장 전진경: 질문이 총 여섯 가지이다. 시간 절약을 위해 제가 답변할 수 있는 부분 답변드린다. 총회를 비대면으로 진행하게 된 것은 2024년 10월 임시총회 때로 거슬러 올라간다. 오프라인 총회로 진행하려고 했는데 외부 집회신고 때문에 오프라인 총회가 무산되면서 갑자기 온라인 총회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엄청난 어려움이 유발되었다. 그 이후로는 온라인 총회를 진행하게 되었다. 온라인 총회의

장점도 대단히 많다. 이렇게 많은 대의원이 참석하시는 총회도 드물다.

위탁처 관련해서 크게 두 가지인데 우선 위탁처 동물을 방치했다, 우울한 표정을 찍어서 이렇게 방치하고 입양 기회도 안줬다는 주장이 있다. 위탁처에 있던 동물은 더봄센터에 입소해 입양을 추진하기 어려운 개체가 대다수였다. 나머지는 사람을 따르기는 하지만 도사견이고 입양이 어려워서 더봄센터 입양순환을 위해 우선순위가 밀린 것은 맞다. 그러나 방치가 되어서 이런 모습이 된 것이 아니고 최초 구조한 모습보다 나아진 모습인데 이렇다.

나머지 하나는 위탁처가 동물보호법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저희가 행정미숙으로 그 위탁처가 여러 곳이 있었는데 그중의 일부가 동물위탁관리업 등록을 안했다는 사실을 몰랐다. 저희 행정 실책이 맞고 다만 저희가 동물을 맡길 때 위탁업 등록 여부가 가장 중요한 판단 기준은 아니었다. 동물을 잘 돌보는지, 관리자가 동물에 대해 어떤 마인드인지, 아이들에 대한 훈련은 가능한지, 전염병이 발생할 수 있는 대규모 집단구조인데 한번에 개체군을 수용할 수 있는지 등이 우선이었고 그러다 보니 다른 부분을 놓쳤다. 하여 현재는 위탁을 해지하고 전부 위탁업 등록이 되어 있는 곳으로 옮겼음을 알려드린다. 해당 위탁처는 이런 모습이였다. 아이들은 견사에서 나오면 무서워하는 애들이 대다수였기에 견사에 있는 모습이 사진 찍힌 것이다. 해당 위탁처와의 인연은 과거 양평 개도살장 구조시부터다. 정형행동이 심한 아이들을 구조했는데 돌봄이 만족스러웠고 위탁업 등록 안된 부분을 못 본 것은 사과드린다. 위탁업 미등록 문제가 보고된 적은 없었다. 보고되었으면 개선했었을 거다.

세 번째 기본재산으로 왜 더봄센터 토지만 하는지에 대해서이다. 동물보호단체에서 동물이 보호되는 곳을 기본재산으로 하는 것은 당연하다. 건물을 안하는 이유는 개보수 주기가 빠르기 때문이다. 저희와 같은 다른 동물보호단체들도 토지만 기본재산으로 하고 있다.

- 대외협력그룹장 임미숙: 회원 게시판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다. 게시판은 2020년도 초, 현재가 아니라 예전에 담은 것이다. 마지막 글이 2018년 또는 2019년 정도일 것이다. 요즘 홈페이지 추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웹용 로그인하여 게시판에 댓글 달고 하는 곳은 없다. 게시판 사용도가 떨어지면서 폐쇄된 것이다. 현재와 무관한 아주 예전의 일이다.

SNS도 저희가 사업 홍보물을 올리면 많은 분들이 응원과 격려도 해주시지만 최근 이슈들로 인해 너무 비방이라든가 허위사실로 거기서 토론을 하시고 싸움을 하신다. 관리할 수 있는 인력도 없어서 일시적으로 댓글을 담은 것이다. 앞으로 정상화 되면 소통을 더 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 의장 전진경: 이사 임원 추천의 건에 대해서, 동물과 관련된 경력 부분을 중요하게 보실 수 있는데 두 분 모두 경력이 있고 강조하지는 않으셨다. 김광수 후보자

는 베지닥터 창립 발기인으로 채식을 실천하고 생명 평화에 관심이 많으며 시민 단체 조직 경영 경험도 있어 카라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분이다. 그리고 이은애 후보자도 아산재단에서 하는 CEO 과정에서 동물권 관련 주제를 논의할 정도로 깊은 이해가 있는 분으로 회계와 재무에도 전문가이다.

- 대의원 윤현식: 10년 넘게 카라를 후원하는 회원이다. 대의원에 관심 없는 유명 회원이었다가 카라를 지지하기 위해, 우리 아이들을 지키기 위해 대의원으로 참여했다. 대의원분들께 좀 여쭙보고 싶다. 카라 슬로건을 알고 계시는가. "인권을 넘어 생명권"이다. 동물 생명존중은 동물 단체의 기본이란 생각이 든다. 기본은 지켜져야 하고 카라만 기본을 지킬 게 아니라 회원, 봉사자, 대의원 등 모든 구성원이 기본을 지켜야 하며 막중한 책임을 가진 대의원을 주춧돌로 하여 카라가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생각이 든다. 그러기 위해 단 하루라도 시간을 할애하여 더봄센터를 방문해 주시고 활동가들 노고를 치하해 주시길 바란다. 더봄센터 아이들을 직접 보고 듣고 느낀 다음에 판단해 달라.

두번째는 카라가 관리하고 있는 대의원이나 회원 개인정보가 아무런 권한도 없는 노조에 의해 무단으로 이용되는 문제다. 일부 대의원 및 회원들에게 개별적으로 전화한 사례들이 있고 허위사실이 담긴 자료도 공유된다. 개인정보 유출이 민감한 시기에 거리낌 없이 개인정보를 악용하고 위법행위까지 자행하고 있는 일부 노조에 대하여 카라는 어떤 처분을 하실지 매우 궁금하고 단순히 넘길 문제는 아니다. 대의원들 앞에서 감히 한 말씀 드리자면 개인의 주관적 판단,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을 명확히 하시어 남의 말에 현혹되지 마셔라. 가십거리에 흔들리지 마시고, 확증편향의 늪에 빠지지 않으셨으면 한다. 마지막으로 구조건 보레에 대한 허위 기사를 대의원 분들이 보셨을 것 같은데 카라는 보레 행동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일부 회원이 공신력 있는 기관의 검증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 카라는 이에 대한 결과를 공유해 달라.

사무처장 김현지와 의장 전진경이 대의원 윤현식의 질의에 답변하다.

- 사무처장 김현지: 안내에서도 말씀 드리긴 했는데 회원정보가 어디까지 유출되었는지 모르는 상태다. 심각한 상황이라고 사무국으로 제보도 많이 오고 있다. 정보 관리 책임자 차원에서 고개숙여 사과드린다. 너무나 많이 잘못된 방식으로 대의원분들에 대한 접근도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사과드리는 입장이지만 개인정보 유출에 대해서는 경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으며 증거에 입각해 접근하고 있다. 개인정보가 더 악용되리라는 우려는 접어주시면 감사하겠다.
- 의장 전진경: 보레에 대한 행동평가는 기관에도 의뢰했는데 아직 응답이 오지 않은 상황임을 말씀 드린다.

- 대의원 고현선: 노조 대표로 당연직 대의원으로 총회 참석했다. 최근 총회 관련 정보전달 과정에서 일부 연락방식에 문제제기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 취지와 경위에 대해 설명 드린다. 활동가들이 대의원들에게 연락을 드린 이유는 구성원들에게 공평하게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서였다. 특정 입장을 강요하거나 사적 이익을 추구하거나 외부로 정보를 유출하려는 의도는 전혀 없었다. 연락은 과거 단체 활동 과정에서 관리되던 범위에서 이뤄졌고 총회 관련 사안에 한정되었다. 채팅방 초대는 개별적으로 참여의사를 확인한 후 진행되었고 원치 않는 경우에는 제외조치 했다. 총회가 충분한 정보에 기반해 이뤄지지 않는다면 그 결과도 왜곡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다. 이것은 민주적 의사결정과 공익을 위한 선택이었다. 다만 일부 구성원께서 개인정보 사용에 불편함을 느끼셨다면 그점은 무겁게 받아들인다. 우리는 어떤 누구의 개인정보도 사적으로 이용하지 않았으며 정보를 공평하게 제공하고자 하는 입장이었다. 이점 차분히 판단해 주시기 바란다. 2018년 감정평가액은 8년 전 가격이다. 현 시세에 역지이고 45억에 안팔렸다는 것도 거짓말이다. 건물매각을 중단하고 임시총회를 열기로 했었는데 임시총회 전날에도 건물을 매수하겠다는 사람이 찾아왔었다. 아직도 아름품으로 45억에 사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찾아오고 있다.

의장 전진경이 준비할 시간을 드리고 다음 질의를 받다.

- 대의원 하미정: 당연직 대의원 하미정 활동가이다. 질문을 드리기보다 현재 더봄센터 활동가들의 호소문을 준비했다.

대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현재 더봄센터에서 구조 동물들을 돌보고 있는 활동가들입니다. 오늘 이 자리는 어느 한쪽의 입장을 대변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현장에서 동물을 돌보고 있는 사람들의 목소리를 전하고자 서게 되었습니다. 지난 2년이 넘는 시간 동안 카라는 여러 갈등과 논란 속에 있었습니다. 자극적인 표현과 보도 속에서 현장의 돌봄 또한 의심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저희가 매일같이 있는 현장은 문제가 없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동물의 복지를 외면하거나 학대, 방치하는 공간은 아니었습니다. 저희가 진짜로 학대하고 방치했다면 수년간 더봄으로 오시는 봉사자님들이 먼저 문제를 제기했을 겁니다.

저희 조직에는 회의 구조가 있고, 업무 메신저와 게시판, 면담 제도 등 의견을 나눌 통로가 과거에도 지금도 있습니다. 서로 다른 생각이 있을 때마다 토론하고 조율하며 개선해 왔습니다. 돌봄 방식에 대한 판단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 또한 동물을 위한 고민의 일부입니다. 현재 더봄센터는 인력이 충분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활동가들은 아침 7시부터 밤 9시까지 2부제로 근무하며, 서울에서 근무하던 활동가들은 먼거리를 달려 오전에는 돌봄을, 오후에는

본연의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돌봄이 멈추지 않도록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동물들은 밥을 먹어야 하고, 치료를 받아야 하며, 사람의 돌봄을 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대의원 여러분, 저희가 드리는 말씀은 조직의 문제를 외면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쇠신이 필요하다면 해야 하고, 운영상의 부족함이 있다면 개선되어야 합니다. 현재 재정은 악화되어 가고, 돌봄 현장은 여전히 긴장 상태에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가장 먼저 보호받아야 할 존재는 결국 의견을 낼 수 없는 동물들입니다. 다만 오늘 대의원 여러분들의 판단이 또다른 혼란과 분열로 이어지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오늘의 표결은 누구의 손을 들어주는 결정이 아니라, 카라가 무조한 동물들의 지속 가능한 돌봄을 어떻게 유지할 것인가에 대한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안정화된 돌봄과 활동은 결국 구조 동물들이 가정으로 입양가는 선순환을 이끌고 과거와 같이 위기 속의 동물들을 활발히 구조하는 본분을 이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저희는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대의원 여러분께서도 조직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방향을 깊이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희의 간절한 마음을 담은 이야기를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더봄센터 활동가 25인 일동.

- 대의원 고현선: 기본재산은 정관 별지에 따르는데 현재 정관 별지는 존재하지 않고 법적으로 우리 기본재산은 없는 셈이다. 기본재산은 출연금 4천3백만 원이 있다고 하셨는데 정관 별지 말고 별도로 어떤 목록에 기재되어 있는 것인가. 파주 더봄센터 토지만 등재하는 것에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아까 리모델링은 이유가 되지 않는 것 같다. 파주 더봄센터는 건물가치가 토지가치보다 훨씬 높다. 기본재산 관련 사안을 충분히 논의한 후에 기본재산 등록을 건의드린다.

의장 전진경이 대의원 고현선의 질의에 답변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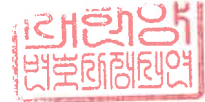
- 의장 전진경: 정관 별지는 아니지만 등기에 단체를 설립할 때 기본재산으로 등재된 게 있다. 잠깐 보여드리겠다. 자산이 적혀있고 당연히 법적으로 기본재산으로 인정되는 것이다. 처음 토지를 살 때 밭을 샀는데 건물가 대비 적은 비용이었지만 건축인허가 뒤 잡종지로 된 다음에 토지 자체의 가격도 달라졌다. 동물보호소들이 건립된 이후 빠르게 감가상각이 되고 3년 주기로 리모델링하고 여러 시설 노후 현상이 일어난다. 그런 것을 기본재산으로 채택할 수 없다. 다른 동물단체들도 토지만 기본재산으로 채택하고 있는 이유다.
- 의장 전진경: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질의를 받고 대의원님들께 연락을 드려 더봄센터에서 만나 충분히 이야기 듣는 시간을 가질 것이다. 여기까지 하고 처장님이 전자투표 방식을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란다.

9. 의결 안내

사무처장 김현지가 의결을 위한 전자투표 방식에 대해 설명하다.

10. 의결 투표 개시 선언

의장 전진경 의결 투표 개시를 선언하다.



11. 의결 투표 종료 선언

의장 전진경이 의결 투표 종료를 선언하다.

12. 의결 발표

의장 전진경이 의결 결과를 공표하다. 본 개표 결과는 무효표 점검 뒤 보정될 수 있음을 안내하다.

의안 제1호에 대해서 전자투표 결과 승인 105표, 불승인 80표로 참석인원 중 과반수가 동의로 승인을 가결하다.

의안 제2호에 대해서 전자투표 결과 승인 94표, 불승인 91표로 참석인원 중 과반수가 동의로 승인을 가결하다.

의안 제3호에 대해서 전자투표 결과 승인 102표, 불승인 83표로 참석인원 중 과반수가 동의로 승인을 가결하다.

의안 제4호에 대해서 전자투표 결과 승인 102표, 불승인 83표로 참석인원 중 과반수가 동의로 승인을 가결하다.

의안 제5호에 대해서 전자투표 결과 승인 103표, 불승인 82표로 참석인원 중 과반수가 동의로 승인을 가결하다.

의안 제6호에 대해서 (1) 김광수 후보자에 대해 전자투표 결과 승인 100표, 불승인

85표로 참석인원 중 과반수가 동의로 승인을 가결하다.

(2) 이은애 후보자에 대해 전자투표 결과 승인 106표, 불승인 79표로 참석인원 중 과반수가 동의로 승인을 가결하다.

13. 의장 인사

의장 전진경이 총회 마무리를 위해 대의원에게 인사말을 전하다.



14. 폐회 선언

오후 9시경, 본 총회의 안건 논의를 모두 마치고 의장 전진경이 폐회를 선언하다.

본 회의의 경과와 의사 확인을 명확히 하고자 이 의사록을 작성하고 선임된 회원이 서명날인하다.

2026년 2월 26일

사단법인 동물권행동 카

의장 전진경 이사

김정빈 이사

박승호 이사

박지영 이사

서정주 이사

최호윤 감사 (인)

등부 2026년 제304호

인 증

위 사단법인 동물행동권 카라의 2026년 2월 26일자 정기총회 의사록에 대하여 본 공증인은 위 정기총회의 의결장소에 참석하여 결의의 절차 및 내용을 검사하였고, 또한 촉탁인(의장 대표이사 겸 회원) 전진경과 (이사 겸 회원)김정빈과, (이사)박승호와 (이사 겸 회원)박지영과 (이사 겸 회원)서정주등의 각 대리인 이지영은 본 공증의 면전에서 위 의사록의 기명날인이 본인의 것임을 확인하였다.



본 공증인은 위 검사 내용과 아래 기재 자료에 의하여 그 결의의 절차 및 내용이 진실에 부합함을 확인하였다.

2026년 3월 11일 이 사무소에서 위 인증한다.

공증사무소명칭 공증인가 법무법인 새한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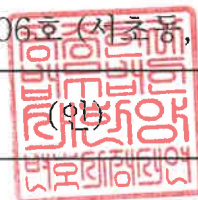
소속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소재지표시 서울특별시 서초구 법원로 15, 306호 (서초동, 정곡빌딩서관)

공증담당변호사

정 서 면

(인)



아 래

- | | |
|----------------|-----------------------|
| 1. 진술서 | 2. 회원명부 |
| 3.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 4. 정관 |
| 5. 주민등록증 | 6. 위임장, 사용인감계 및 인감증명서 |